

## 정책동향

## 중기청, 경영 컨설팅비용 최고 60%지원

중소기업청의 정상근 기술지도과장은 “기업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컨설팅 비용의 50~60%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개별 기업의 규모, 특성 및 컨설팅 테마 등을 고려해 일반분야, PL분야, 워크숍분야로 구분해 중소기업의 의도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의 경우 컨설팅비용이 500만원미만 이면 300만원을, 500만원이상은 최고 50%(상한액 5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제조물책임(PL) 컨설팅은 350만원, 워크숍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한국능률협회를 통해 우수 컨설팅사로 선정된 그린필드 M&T 등 23개 컨설팅사에 대해서는 이번 컨설팅 사업에 자동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설팅사는 중기청 홈페이지 및 테크노넷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중소 인력양성費 국고 지원, 금융·세제혜택도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 경영 및 인력 지원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중 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 중소기업의 생산인력 재교육 및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금융·세제 혜택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현장 인력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월 정액급여 기준)를 15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부터 2007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용중인 중소기업 어음보험제도를 확대 개편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투입키로 했다.

## 기술동향

## KIEC, 산업부문별 전자문서 표준화 박차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이 산업별 표준전자문서 제정기구인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 산하 31개 업종별 소위원회 조직과 전자문서 표준화 활동강화에 나선다. 또 ‘산업부문별 전자문서 표준화 촉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표준전자문서 이용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IEC는 이의 일환으로 최근 공구·금형·기계·섬유·유통·자동차·전자·조선·철강·파스너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요인을 조사하고 업종특성에 맞는 전자문서 이용촉진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KIEC측은 “조사결과 기업체들이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도입비용 부담에 대한 투자효율의 미검증과 기업간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미흡 등이며 해결책으로는 정부주도의 전자문서표준화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IEC는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 업종별 소위원회를 운영, 산업부문의 전자문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민간중심표준화 리딩그룹을 활성화하고 이의 업종별 전자문서표준화 및 기업적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컴퓨터시스템취약성평가, 국제표준화시대 ‘눈앞’

미국 비영리연구기관인 미트레는 컴퓨터시스템 취약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표준안인 ‘OVAL(Open Vulnerability Assessment Language)’을 발표했다.

이번 표준안은 미트레가 추진한 컴퓨터시스템 취약성 명칭 표준화인 ‘CVE(Common Vulnerability and Exposure)’ 제정에 이은 두번째 표준화 사업이다.

이는 국내외 컴퓨터시스템 취약성 평가 제품군에 속하는 스캐너나 취약성 평가시스템들은 각각 독자적인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통일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국내 스캐너 업체는 그동안 각사별로 고객사의 취약성을 분석했으나 그 방법에 따라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이번에 제정된 표준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국내업체들은 표준안 도입에 나선 상태다. 현재 시큐브(대표 홍기용) 등 업체들이 취약성 항목에 대해 미트레가 제정한 CVE 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OVAL 쿼리 형태를 준수하고 있어 이르면 올 상반기내 서비스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동향**

**벤처정책자금 성장단계에 맞춰 신청하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오길록)은 최근 벤처 포털 사이트 스카이벤처를 통해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 등 주요 4개 부처의 벤처지원 정책과 자금지원 방향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이들 부처가 초기창업자를 포함한 전체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요 정책자금 및 지원정책은 모두 74개로 집계됐다.

추진기관별 정책 및 자금지원사업은 중기청이 29개, 정보통신부 22개, 산업자원부 13개, 과학기술부 1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창업 초기단계 기업(0단계)과 개발은 끝났으나 사업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업(1단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지원사업은 각각 13개, 27개로 분석됐다. 또 상업화에 성공했으나 시장 확대가 필요한 기업(2단계), 추가공모나 금융지원이 필요한 성장단계의 기업(3단계)에 초점을 맞춘 사업은 38개, 27개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벤처정책이 초기단계(0~1단계)기업보다 이미 성장단계에 오른 기업 지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2000억대 장비시장 '양극화' 뚜렷**

올해 2000억원대(130만 가입자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랜 장비 시장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스코시스템즈·쓰리콤·어바이어·엔터라시스 등 외산 장비업체들은 기업용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크로웨이브·삼성전기·엠엠씨테크놀로지·아이피원 등 국산 장비업체들은 KT·하나로통신이 추진하는 공중망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국내 무선랜 시장을 놓고 외산 업체들과 국산 장비업체들간 시장 공략 전략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KT·하나로통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중망 무선랜 서비스를 위한 장비 구매 가격이 원가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들 차원에서는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보안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국산 장비를 선택하기보다는 다양한 보안, 해킹 방지 기능이 탑재된 외산 장비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동향**

**[IT] 포털,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사업 열풍**

포털업계에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사업 열풍이 불고 있다. 포털업체들이 너도나도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올 경영목표를 수익확대로 설정했고 이를 위한 가장 적합한 콘텐츠가 게임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포털업체들이 대거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시장에 뛰어들어 따라 이 분야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에 따라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 게임 개발업체와 포털업체간 합종연횡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BT] 올 바이오산업 최대과제 '지속적 투자'**

올해 바이오 산업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는 바이오 산업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투자로 나타났다.

포항공대 생물학전문연구정보센터(센터장 남홍길)가 최근 실시한 '2003년 새해에 바란다'라는 설문조사 결과 바이오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바이오산업 정착화를 위한 정부투자(45%)를 가장 중요한 바이오정책으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바이오 산업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예산 및 연구비 부족(50%) 현상과 바이오기술의 산업화 전략 부족(23%)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ET] 환경벤처 중국진출 가시화**

환경벤처들의 중국 진출이 가시화하고 있다.

환경벤처들은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따라 2~3년 전부터 중국 진출을 도모해 왔다. 그동안 해외 선진기업들의 시장선점과 중국측의 불투명한 계약 조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그 성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환경벤처들은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피해 중소형 도시를 집중 공략하고 대형 투자금융회사와 제휴하거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공적개발자금(ODA),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자금인 대외개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안정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키이엔지니어링(대표 고지환·오석인)은 산둥성에 300억 원 상당의 폐수처리장 건설계약을 했고, 대경엔텍(대표 정일호)은 오는 3월 150억원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후이난성에 건설할 예정이다.